

법원 사람들

Supreme Court of Korea

창의
내일을
상상한다



배우는 즐거움

너머의 시선
세상을 바꾸는 힘, 창의력 훈련법

함께하는 즐거움

법원 그곳
특허법원

Vol.406 / 2019

02

CONTENTS

Supreme Court of Korea
2019_02_vol.406



04 page



16 page

Special Theme

배우는 즐거움

- 04 **인사이드 스토리**
우리는 창의력이 필요해
- 06 **너머의 시선**
세상을 바꾸는 힘, 창의력 훈련법
- 10 **人side 인터뷰**
창의력은 몸과 정신의 한계를 극복한다
- 김광희 교수
- 14 **오늘의 기록**
알아두면 유용할 2019년 달라지는 것들

Work & Balance

함께하는 즐거움

- 16 **법원 그곳**
지식재산권의 공명정대한 파수꾼
- 특허법원
- 20 **공감**
나의 창의력 멘토는○○○이다
- 22 **행복 다이어리**
탁구공은 우애를 싣고
- 26 **밀줄 긋는 여행**
젊음과 예술, 역사가 한 물결로 흐르는
- 대전 원도심 여행
- 32 **현장 속으로 1**
'제19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 개최
- 34 **현장 속으로 2**
사법역사문화교육관, 닳을 올린다
- 38 **법원으로의 초대**
'우리모여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법원 방문기

- 40 조사심의관 코너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 44 나의 일 나의 삶1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시작!
- 46 나의 일 나의 삶2
소확행(小確幸)을 주는 여행지
- 49 핫이슈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실시
- 50 맛 오디세이
만두를 말하다, 제갈공명부터 K-만두까지
- 52 법원 NEWS
- 54 공감우체통
- 55 얼마나 보드Lounge



22 page



통권 406호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발행일 2019년 2월 1일
편집인 공보관 박진웅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조영
편집기획팀 김경원, 송소현, 이경미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홈페이지 <http://people.scourt.go.kr>
기획·디자인·인쇄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COVER STORY

이번 달 표지 콘셉트는 '창의'입니다. 지식을 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나눌 때 비로소 발휘되는 창의력을 전구, 책, 돋보기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의력이 필요해

창의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능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의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창의력을 높이는 비결은 따로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창의력 뛰어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의력은 천부적 재능보다 노력의 산물에 훨씬 가깝습니다. 더 오래 고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더 잘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창의력은 선물처럼 배달됩니다. 나와 내 주변사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즐겁고 가슴 뛰게 만드는 힘, 창의력. 이달에는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의 칼럼과 도서 <창의력에 미쳐라>로 잘 알려진 김광희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창의력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봅니다.

The word "CREATIVITY" is written in large, white, sans-serif capital letters. Several small, stylized human figures are interacting with the letters. One figure sits on the 'C', another stands on the 'E', and others are positioned around the 'I' and 'T'. The background is a dark, textured surface, possibly a chalkboard, with a faint blue heart shape drawn on the right side. The bottom of the image shows a wooden surface.

CREATIVITY



세상을 바꾸는 힘, 창의력 훈련법

창의력을 선천적인 기질이라 오해하지 말자. 창의력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창의력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에서 출발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식과 정보를 다양하게 엮고, 비틀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창의력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글. 박문호(뇌과학자, 자연과학세상 대표)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이유

창의력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요구되는 인간의 능력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능력이 창의력이다. 창의력은 글쓰기, 문제 풀기, 혁신적 제도처럼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창의력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휘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충분한 고급 정보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높은 창의성이 주로 '전문가'에게서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또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려면 목표가 명확한 목적지향적인 집중이 필요하다.

창의력 높이는 탑다운식 학습법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효과적인 학습법이 있다. 이는 마치 항아리에 모래와 자갈과 큰 돌을 가능한 한 많이 넣는 방법과 유사하다. 항아리에 모래부터 담기 시작하면 자갈과 큰 돌을 넣을 공간이 부족해진다. 하지만 큰 돌부터 먼저 넣으면 큰 돌 사이에 자갈이 잘 들어가고, 모래는 자갈 사이의 조그마한 공간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다. 큰 돌은 각 학문 분야의 기본 개념이며, 자갈과 모래는 핵심 내용과 세부지식이다.

탑다운식 학습법은 앞의 비유처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을 먼저 공부하는 방법이다.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전체 그림에 대한 윤곽을 파악한 후 세부사항을 공부하는 것이다.

핵심 개념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핵심 개념은 그 분야의 모든 정보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 정보만으로도 그 분야를 재구성해낼 수 있으며, 그 분야의 구조가 명확해진다. 둘째, 핵심 개념은 하나의 문장으로 축약할 수 있고, 심지어 핵심 단어로 표현될 수 있어 생각의 바

탕이 된다. 셋째, 핵심 개념의 반복은 어느 순간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의 역사에서 지동설, 관성의 법칙, 팽창하는 우주, 불확정성원리, 광속불변원칙, 대륙이동, 진화론, 세포공생설처럼 기본 핵심 개념들은 새로운 과학 분야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핵심 개념이라는 큰 돌을 항아리에 먼저 넣으면 자갈과 모래가 스스로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핵심 개념은 그 주변에 많은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고 세부 지식들이 핵심개념 주변에 달라붙게 된다. 핵심 개념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고, 몸으로 익숙해진다면 공부와 내가 한 몸이 될 수 있다.

창의력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휘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충분한 고급 정보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높은 창의성이 주로 '전문가'에게서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타다운식 학습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텀업 학습법도 있다. 바텀업 학습법은 세부사항을 먼저 만나고 세부 내용에서 전체 의미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학습할 경우 핵심 개념이 분산되고 학습자가 특이한 세부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 쉬우니 유의해야 한다.

손으로 그림을 그릴 것

뇌 기억 속에는 유용한 정보가 많지만, 각각의 정보는 맥락 없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창의력의 핵심 요소는 이러한 이미지를 새롭게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미지들을 새롭고 독특하게 연결하는 일은 습관적인 생각 속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눈에 보이도록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생

각을 그림으로 그리는 행위는 대상 이미지의 시각 기억을 손 운동의 절차기억으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손으로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불안정하다. 인간 뇌의 형상화 능력은 방금 본 대상도 눈을 감고 기억으로 그려보면 막막해지고 일부 특징적 형태만이 뇌리에 남는 게 보통이다. 시각 기억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직접 그림으로 종이에 옮겨놓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일단 종이에 옮겨진 생각은 뇌에 고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머릿속으로 기억할 경우 생각이 바뀌면 고정된 실체가 없어 논리적인 결합이 어렵지만, 생각이 그림으로 표현된다면 그림과 그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창의력 훈련의 세 단계

창의력 훈련의 첫 단계는 뇌가 기억하고 있는 시각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고정하는 작업이다. 생각을 반복해서 그리면 그 그림을 기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학 교과서 단원마다 많은 그림이 있다. 전자 회로, 생화학 회로, 세포, 아미노산 분자, 단백질 입체 구조, 광합성,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과정, 태아의 발생 과정, 암석의 결정구조, 지층, 판구조론, 별 속의 핵융합 과정, 세계 지도, 역사 지도가 기억해야 할 주 대상이다. 기억된 그림들이 생각의 재료가 되어야 하고, 모듈화된 그림들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연결해야 한다. 시간 순, 장소 순으로 연결된 이미지를 결합하는 것이 바로 인간 사고의 핵심 과정인 연상 작용이다.

창의력 훈련의 둘째 단계는 이미지 연결 순서를 목적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미지의 새로운 연결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기억의 새롭고 독특한 연결이 바로 창의력이다.

창의력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이미지들을 비선형으로 연결하는 훈련이다. 막연하고 우발적인 비선형 연결이 아니라 정서적 느낌을 바탕으로 끌리는 연결을 유도하는 훈련이다. 다양하게 조합 가능한 생각의 연결에서 리듬과 운율을 동반한 이미지 연결 조합을 직감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인 것이다.

창의성의 핵심은 뇌 속의 애매한 시각기억을 그림으로 표현해 손 운동의 절차기억으로 전환하는 훈련에 있다. 그렇게 형상화된 시각기억을 인출해 그림으로 표현하는 반복 과정은 창의력 훈련의 핵심이 된다. 📖

박문호 박사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 A&M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자연과학세상' 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대, KAIST, 불교TV, YTN 사이언스 등에서 뇌과학 강연을 했으며 2015년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을 수상했다. 「뇌과학의 모든 것」, 「뇌 생각의 출현」,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뇌 기억 속에는 유용한 정보가 많지만, 각각의 정보는 맥락 없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창의력의 핵심 요소는 이러한 이미지를 새롭게 연결하는 능력이다.

창의력은 몸과 정신의 한계를 극복한다

〈창의력에 미쳐라〉의 저자 김광희 교수

글. 최덕철_사진. 김인규

세상은 우리에게 창의력을 요구한다. 남들과 다른 시선, 남들과 다른 생각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 김광희 교수는 〈창의력에 미쳐라〉 등 다수의 책을 통해 창의력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 그에게 물어보자. 어른들도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까?



창의력을 높이는 비결 따로 있다

창의력은 왜 중요할까? 김광희 교수는 인류 발전과 개인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창의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건 다양한 창의력의 결과입니다. 개인에게 창의력은 경쟁력이자 즐거움이지요. 취업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또 은퇴를 한 경우에도 창의력이 뛰어나면 남들과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창의력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창의력을 경쟁력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창의력을 계발하는 필수적인 핵심요소로 5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 요소는 ‘지식’이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합니다. 창의력은 지식들의 융합이자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직장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백지상태에서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다.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동기가 뚜렷해야 한다. 그 동기가 외부의 강압 즉, 채찍일 수도 있고, 회유책인 당근일 수도 있다. 김광희 교수는 창의력을 계발하는 데는 채찍과 당근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다양성’이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동심’, 즉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어른들은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미리 경계하고 선을 긋다 보니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한 소설가가 말했어요. 아이디어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가리켜 어른이라 부른다고요. 그래서 어

린 아이처럼 고정관념이 없어야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세요. 자녀나 조카가 있다면 그들을 잘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기법’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창의력 계발에 관한 기법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잘 아는 ‘브레인스토밍’도 그 기법 중 하나. 김광희 교수는 우리나라 직장문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법 하나를 소개했다.

“상사 눈치 보느라 아이디어 회의에서 마음껏 의견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말보다 글로 하는 브레인라이팅이 효과적이에요. 특히 635법을 추천합니다.”

635법은 독일 분석기법 전문가인 홀리겔(Holliger)이 1968년에 개발한 방법으로, 6명이 모여 각자 3개의 아이디어를 종이에 적되, 5분에 한 번씩 옆 사람에게 종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회의는 총 30분이 소요되며 이때 나오는 아이디어는 무려 108개나 된다.



“경직된 회의문화에서는 30분 동안 브레인스토밍하면 아이디어가 10개도 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브레인라이팅은 같은 시간에 108개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그룹을 6명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6명이 커뮤니케이션하기 가장 좋은 인원 수이기 때문입니다.”

김광희 교수의 독서 노하우

김광희 교수는 창의력이 지식을 조합하고 융합하는 능력이라며 지식을 쌓는 방법으로 독서를 강조했다. ‘2만 원 정도를 투자해 20년 동안 축적해온 관련 전문가의 소중한 지식을, 2시간 안에 터득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독서라는 것. 그의 독서량이 궁금해 묻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한 달에 읽은 책이 무려 200여 권이다. 대학교수이기도 한 그가 일하면서 한 달에 그만큼 읽은 것이 가능할까? 이유를 들어보니 그만의 독서법이 따로 있었다.

“한 달에 200권을 읽으려면 매일 7권 가까이 읽어

야 해요. 저는 도서관에서 한 번에 20권씩 책을 빌리는 편인데, 우선 책의 목차를 훑어보고, 그 다음 머리말을 읽습니다. 그럼 대략 5분 정도가 걸려요. 머리말에는 책의 기획 의도와 함께 전체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그것을 통해 책의 어떤 부분을 읽어야 할지를 결정해요. 그 부분만 발췌해 읽는 겁니다. 내용이 뻔해 보인다면 책은 본문을 굳이 읽지 않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들은 그날 밤이나 다음 날 아침에 컴퓨터에 메모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지식들을 연결해 써먹는 거죠.” 그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목차만 봐도 내용에 대한 ‘감’이 온다고도 덧붙였다.

고정관념에 자신을 가두지 말 것

김광희 교수는 창의력은 신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일화 하나를 소개했다. 크로스컨트리와 육상 종목에서 활약했던 파보 누르미(Paavo Nurmi)라는 선

“사람마다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순간을 만난다. ‘나는 더 이상 안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멈춘다. 그 한계를 깨는 것이 바로 창의력이다.”





수가 있었다. 그는 1923년 1마일(약 1.6km)을 4분 10초만에 달려 세계신기록을 달성했다. 이후 오랫동안 누루미의 기록은 깨지지 않았고, 언론은 입을 모아 그의 기록을 ‘인간의 한계’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런데 1954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영국의 로저 배니스터(Roger Bannister)가 ‘1마일 4분’의 벽을 깨뜨린 것이다. 무려 31년 만의 기록 갱신. 더 놀라운 사실은 배니스터가 기록을 갱신한 그 해에만 무려 23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누루미의 기록을 모두 깨뜨렸다.

“그동안 누루미의 기록을 깰 수 없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에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한 번 깨지니 그 기록을 깬 선수들이 속출한 겁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은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고, 육체에도 관여해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순간을 만난다.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멈춘다. 창의력은 그 한계를 부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조언했다.

“자녀의 능력에 한계 짓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정말로 수학에 장벽을 쌓게 돼요.”

인터뷰 말미에 그는 창의력은 후천적인 노력과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 선천적인 기질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본인 역시 그러한 노력의 산증인이라고 말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존의 것들을 조합하고 편집하는 것이란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창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김광희 교수

공고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일본으로 유학해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협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창의력에 미쳐라>, <창의력을 씹어라>, <미친 발상법> 등 창의력을 주제로 한 책을 다수 집필했다. 대기업, 연구기관, 금융회사 등에서도 창의력과 관련된 강의를 하며 독자들과 소통한다.

알아두면 유용할 2019년 달라지는 것들

글: 편집실

새해부터 경제, 사회, 노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가 많다.
특히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놓을 만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너적한 황금돼지해를 맞아 법원가족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소개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를 후에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예상될 경우, 하루 전날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속 등의 예비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형 마트 및 규모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제공 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고기나 생선처럼 비닐봉지로 감싸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이제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는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전국 주요 공항에 도입된다.



아빠 출산 휴가 확대

남성의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유급 출산휴가는 10일(중소기업은 유급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기존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3~5일).



주민등록증 · 여권사진 단일화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 3.5cm*4.5cm로 여권 사진과 같게 되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여권 사진 모두 '귀와 눈썹이 보이는' 조건이 삭제됐다.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 Work Balance

함께하는 즐거움

특허법원을 만나봅니다. 갈수록 첨예화되는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특허법원을 통해 전문법원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아보고, 특허법원가족들이 말하는 '나의 창의력 멘토'에도 귀 기울여봅니다. 특허법원에 왔다면 대전 여행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젊음과 예술, 역사가 공존하는 대전 원도심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법원 소식도 다채롭습니다.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과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 개관 소식, 법원가족의 글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에세이까지 모두 만나보세요.

특허법원

지식재산권의 공명정대한 파수꾼

글. 최덕철_ 사진. 김인규

‘총성 없는 전쟁’, 특허전쟁이 전 세계에 걸쳐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관련 분쟁이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사의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허법원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좌측부터) 김희철 사무관, 이봉자 사무국장, 김하나 속기사, 조경란 특허법원장, 신희채 실무관, 진주희 보안관리대 실무관, 조지훈 기술심리서기관, 이진희 판사, 주빛나 실무관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전문법원

대전광역시에 자리한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IP)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1998년 3월 개원해 지난해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과 민사항소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개원 당시 3개의 재판부와 기술심리관 9인 체제였던 특허법원은 현재 5개의 재판부와 23인의 기술심리조사관 체제로 성장했다. 아시아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은 2010년 우리나라 법원 최초로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해 전자소송을 개시했다. 현재 특허법원에는 104명의 법원가족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관은 조경란 법원장을 포함해 17명이 있다. 또한 주요 주제에 관한 심층연구활동으로 법관들의 재판 업

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 센터가 설치, 2인의 연구원이 근무하며 활발한 연구활동 수행 및 특허법원의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우리나라에서 부설 연구센터가 설치된 유일한 법원이기도 하다.

글로벌 IP 허브로서의 특허법원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국경 제한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 콘퍼런스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수준 높은 국제 학술행사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IP 전문법관과 실무자들이 교류하는 국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열린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태국, 인도, 베트남 등 세계 8개국에서 온 판사 및 전문가들이 200여 명의 실무가와 함께 'Court, IP and protection'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재연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법원, IP 및 보호’로 정하고,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분야에서 이 주제를 관통하는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향후 우리 실무와 법리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외국어 변론이 가능한 국제재판부

특허법원은 해외 당사자 사건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 2017년 법원조직법을 개정, 외국어 변론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재판부는 해외 당사자 비율이 30%가 넘는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여건에서 법정에서의 언어 장벽을 낮춰 사법 접근권을 강화하고, 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이 글로벌 IP 허브 코트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법상 법정에서는 ‘국어 사용’이 원칙이지만, 국제재판부에서는 양 소송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국내 당사자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신청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국제재판부로 진행되지 않고, 국내 당사자에게 외국어 사용이 강제되



“특허법원은 해외 당사자 사건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 2017년 법원조직법을 개정, 국제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는 것도 아니다. 재판부는 국어로 소송을 지휘하고, 판결서 역시 국문으로 작성되되, 당사자 간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와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변론 과정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 법원에 소속된 통역인이 수준 높은 통역을 제공한다. 또 국문 판결서에 대한 영문 번역본도 제공해 다른 나라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유력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허법원에서는 지난해 제1호 국제재판의 변론이 열려 차질 없이 진행됐다. 현재 국내 법원 중 국제재판부를 두고 있는 곳은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두 곳이다.

과학콘서트와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특허법원은 일반 시민들 및 관련 직역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과학콘서트는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과학기술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과학기술계와의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과학콘서트를 마련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중에게도 친숙한 정재승 교수(바이오 및 뇌공학)를 포함하여 이상엽 교수(생명화학공학과), 오준호 교수(기계공학과) 등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교수들이 강연자로 나서 과학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강연을 진행했다. 소정의 요건을 갖춘 참가자에게는 특허법원과 카이스트가 인증한 수료증을 전달했다.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다. 201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2회 대회부터는 경진 분야에 상표 부문을 추가하며 비이공계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생의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출제한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각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변론경연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5개 대학원에서 35개 팀이 참여,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분야 16개 팀, 상표분야 8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돼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 밖에도 특허법원 봉사활동 단체 '사랑나눔회'는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사랑나눔회는 지난해 3월과 8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결연기관인 중증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한결음'과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 수녀회 '대전나자렛집' 등을 방문해 기증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정관 특허법원장은 "특허법원은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도 지속해서 펼쳐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문]



(위) 작년 10월 국제특허법원 콘퍼런스 기념사진.

(아래) 작년 8월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의 모습.



INTERVIEW



조경란 특허법원장

“ 높아진 특허법원의 위상, 지식재산 분쟁 조정에 최선을 ”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법원으로, 1998년 설립되어 지난해에 개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6년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과 민사항소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을 다루는 특허법원에서도 '좋은 재판'과 '좋은 판결'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아 충실한 재판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재판 준비가 충실하면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잘 들어주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법원의 재판에는 법관들을 조력하는 기술심리관, 조사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전문가 증인, 감정인 등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관여하여 매우 전문적인 사항이 다루어지는 만큼 이들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관 등 법원구성원에게 통계 등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는 충실한 재판과 판결에 집중할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특허법원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에도 특허법원은 좋은 재판과 좋은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제 교류활동도 활발히 펼쳐 많은 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허법원

특허법원의 역사

1998. 3. 1.

특허법원 개원

2000. 3. 1.

대전으로 이전

2003. 9. 1.

현재의 청사로 이전

2010. 4. 26.

전자소송 도입

2016. 1. 1.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집중

2018. 6. 13.

국제재판부 출범

특허법원의 관할

① 민사항소사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사건

② 심결취소소사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허심판원 등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특허법원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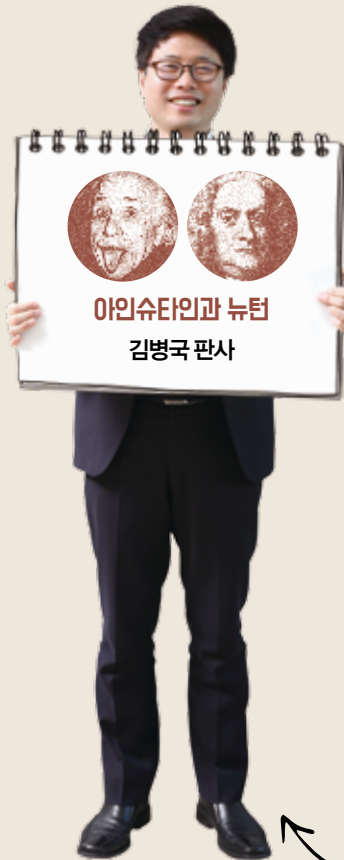


특허법원 사람들이 답했다

나의 창의력 멘토는 ○○○이다

구성: 최덕철_사진: 김인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좋은 자극을 받는다. 그 자극은 나의 창의력으로 발전한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알고, 만나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특허법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았을까. 그들의 창의력 멘토를 물었다.



공통 질문

- 1 창의력 멘토는 누구인가요?
- 2 위키멘토를 통해 얻은 업무 효과는?

1 어릴 때 과학과 수학을 좋아해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천재 물리학자들을 동경했습니다. 뉴턴은 일상의 사소한 발견에 주목하여 물리학의 틀을 닦았고,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빛과 시간, 질량의 상관관계를 알려줬습니다. 저도 그런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과학에 소질이 없다는 걸 알고는 일찍 꿈을 접었죠(웃음).

2 지금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인공지능', '암 치료 연구', '청정에너지' 등과 같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나 관련 서적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특허법원의 사건들은 과학이나 의학 기술 분쟁을 다루는 경우도 많은데, 어느 정도 배경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사건을 접하니 분쟁들을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다산 정약용
김경섭 실무관

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머릿속을 비우고 싶을 때 태블릿 PC를 가지고 노는 편이에요. 주로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앉아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블릿 PC를 만든 스티브 잡스가 제 창의력에 도움을 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② 일하다 보면 걱정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태블릿 PC를 가지고 놀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새로운 생각과 기분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제게는 태블릿 PC가 회사 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은 원동력이자 행복이에요.



스티브 잡스
김현주 실무관

① 다산 정약용 선생을 존경합니다. 워낙 다방면에서 능력이 뛰어난 분이지만, 특히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도르래 원리를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고안한 거중기가 엄청난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책과 자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해 이뤘던 성과라고 하니 그 열정과 끈기가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② 거중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약용 선생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백성들은 과중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정약용 선생의 책을 읽으며 저도 특허법원을 찾는 국민들이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재승 교수
박경아 참여관

① '특허법원과 카이스트가 함께하는 과학 콘서트'에서도 직접 강연을 들었지만, 정재승 교수님이 제게는 큰 영감을 주신 분이에요. 과학과 거리가 먼 사고와 생활을 하면서 과학이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교수님 덕분에 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웃음). 설명도 재미있게 해주시고 전혀 다른 영역의 지식과 연결하고 확장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② 특허법원은 업무 특성상 과학 기술에 관한 내용을 자주 접하게 돼요. 정재승 교수님의 책과 강연 덕분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탁구공은 우애를 싣고

특허법원 탁구동호회의 새해맞이 떡국파티

취재. 안형진_ 사진. 김인규

특허법원 10층에 위치한 탁구장에서는 2.7g짜리 작은 공이 네트 위를 수없이 오간다. 탁구공에 땀방울과 웃음, 우애를 담아내는 탁구동호회 회원들. 탁구를 통해 하나 되는 특허법원 탁구동호회를 위해 <법원사람들>이 새해 소원과 덕담을 나누는 떡국파티를 열었다.

가벼운 탁구공이 만드는 묵직한 우애

2001년에 시작된 특허법원 탁구동호회는 현재 회원 수 55명으로 특허법원과 한 건물에 등지를 둔 대전가정법원의 구성원들도 함께 하고 있어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10층에 마련된 넓은 탁구장(국제심포지움 등 외부행사 시에는 멋진 뷔페식당으로 변신)은 탁구동호회의 자랑이자 특허법원의 자랑이기도 하다. 업무 시작 시간 전과 점심시간 동안 잠시 짬을 내고, 심지어 주말에도 탁구장으로 나와 탁구를 즐기는 회원들이 많고, 또 가족들과 즐기는 회원들도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때에 탁구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법원사람들〉이 특허법원을 찾은 날도 회원들은 탁구장에 모여 탁구를 즐겼다. 랠리 속에 간간히 터지는 강력하고 날카로운 스매싱이 인상적이다. 분주한 발놀림 소리, 기합과 탄식, 즐거운 대화와 웃음이 넓은 공간을 촘촘하게 채우고 있었다.

탁구공의 무게는 2.7g이다. 동호회원 민정임 기술조사사무관은 가벼운 탁구공이 만들어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우애가 좋다고 한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서로 소통하거나 만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데, 10층 탁구장에서는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업무로 지친 심신에 휴식을 얻는다고.

김미진 실무관에게 탁구장은 구성원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공간이다. 동호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그녀는 위로는 부장판사님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지위를 초월해 탁구로 이어진 인연이 소중하다. 김성식 판사가 말을 이어받아 “강력한 스매싱 앞에 지우고하와 자비는 없는 법”이라며 웃었다. 김성식 판사는 회원들과 탁구와 함께 수다를 떨며 하루의 활기를 충전해 업무에서도 시너지를 받고 있다.



탁구 통해 되찾는 웃음과 건강

최일승 기술심리서기관이 탁구동호회에서 보낸 시간은 1년 남짓. 특허청에서 파견 나와 특허법원 생활에 적응하는 데 탁구동호회는 큰 힘이 됐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동료들과 함께 탁구를 즐기던 그에게 1년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체중이 5kg 정도 줄어든 것. 그는 “이 모든 영광을 탁구에게 돌린다”고 말하며 웃었다. 주위 동호회 회원들이 그를 향해 “날씬해지셨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 말에 주위를 둘러보니 회원 모두 건강한 활력이 넘치는 체형을 자랑하고 있다. 김성식 판사도 체중 20kg(2kg의 오타 아님) 가량을 감량했다고 하니 탁구의 탁월한 운동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조현주 행정관이 탁구장을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점심시간인데, 탁구는 육아 스트레스를 날려준 고마운 운동이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어 다칠 확률도 적고, 격렬하지 않아 여성들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다.





떡국과 함께, 덕담 한마당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법원사람들>은 탁구동호회를 위해 작은 떡국파티를 준비했다. 방금까지 탁구로 구슬땀을 흘린 탁구동호회 가족들은 떡국으로 명절 기분을 내며 새해맞이 소망과 덕담을 나눴다.

동호회의 회장인 이규홍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먼저 새해 소망을 이야기했다. 이규홍 고등법원 부장판사

는 “회원 모두가 탁구로 다져진 체력을 기초로 차분하게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과 가정 평화의 버팀목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회원이시기도 한 조경란 특허법원장님,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님, 이봉자 사무국장님을 올해 탁구장에서 더 자주 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동이 한 시간이면 보약이 한 첩이라는데, 모두가 건강하게 한 부수(탁구



에서 '부수'는 '급수'로 생각하면 쉽다. 참고로 전국대회는 1부에서 7부까지 있고, 3부 정도면 아마추어 최강자에 속한다.)씩 올라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포츠는 이기면 기분 좋기는 하지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승리 이외의 모든 것을 얻는다'는 말처럼 공평한 물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탁구는 겸손과 자제 그리고 노력의 대가를 체감하게 하여 주므로 어느모로 보나 밀지는 장사가 아니다"고 덕담했다.

조인숙 행정관은 지난해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탁구동호회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기에 새해에도 건강하게 동호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녀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덕담을 전했는데, "아침마다 탁구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왕용 과장님, 최일승 과장님, 안효숙 행정관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 가신 이왕용 과장님, 많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세영 기술심리서기관은 2019년 특허청에서 발령을 받아 특허법원으로 왔다. 탁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고, 앞으로 새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특허법원과 탁구동호회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감사와 행복의 랠리는 끝나지 않는다

이상우 실무관과 이동성 실무관은 단짝 동료인 듯했다.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과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풍경을 자아냈다. 이상우 실무관의 새해 목표는 가족 건강 지키기 그리고 한 달에 책 두 권 읽기이다. 또, 이번에 재무제로 온 유기호 행정관에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홍성지원으로 간 박재수 참여관에게 '보고 싶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동성 실무관에게는 특허법원이 첫 임용지다. 일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탁구동호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그는 올 한 해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유지혜 실무관은 바쁜 생활에 쫓겨 운동과 친해지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운동을 3개월 이상 해본 적이 없다"며 웃는 그녀는 올해 탁구만큼은 꾸준히,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한다. 특히 탁구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탁구 레슨과 고급 라켓까지 아낌없이 지원받고 있다며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매일마다 특허법원가족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전영숙 행정관은 지금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옛 특허법원가족 김우수 고등법원 부장판사님께 "친절하고 자상하게 챙겨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늘 감사했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라고 새해맞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허법원 탁구동호회는 곧 20주년을 맞이한다. 순환근무가 일상화된 법원가족들이기에 그동안 수많은 법원가족들의 이야기가 탁구공을 통해 쌓였을 것이다. 탁구동호회가 기해년 새해에도 특허법원가족들이 추억을 쌓아가는 공간으로 계속되기를 바란다. 📖



젊음과 예술, 역사가 한 물결로 흐르는 대전 원도심 여행

글. 최덕철_ 사진. 김인규

대전 원도심이라 불리는 대전 선화동, 대흥동, 은행동 일대는 다양한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이다. 10~20대가 주로 찾는 ‘으능정이 거리’에는 싱그러운 에너지가 흐르고, 건너편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공연, 전시 등 예술 공간과 아날로그 감성이 공존한다. 또한 원도심 곳곳에는 옛 건축물들이 자리해 우리나라와 대전의 역사를 투영한다.

01_

대전 원도심 으능정이 거리의 모습.

02_

으능정이 거리에서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10~20대의 젊은 층을 유독 많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단골 놀이터 ‘은행동이 거리’

충남도청이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대전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은 중부권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1990년대에 들어 둔산 신도시 개발과 함께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대전 원도심 지형은 새롭게 바뀌었다. 공공기관 등의 이전으로 공무원과 직장인이 떠난 자리를 중·고교생과 대학생, 문화예술인, 여행객 등이 대신했고, 고객층이 변하자 상점들의 종류도 달라졌다. 또한 2006~2007년 지하철 1호선 개통 역시 대전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도시재생사업 등 대전 원도심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더해져 원도심은 대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심 중 하나인 은행동은 유독 10~20대의 젊은 층을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이

다. 은행동의 큰 거리를 ‘은행나무가 있는 정자자리’라는 뜻에서 응능정이 거리라고 부르는데, 수업이 끝나는 오후 시간이 되면 삼삼오오 몰려나온 학생들로 거리는 왁자지껄해진다. 저렴하면서 트렌디한 옷 가게, 액세서리 가게, 음식점, 분식 포장마차, 술집 등이 많아 지갑이 얇은 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놀이터는 없다.

밤이면 특별한 영상 쇼가 펼쳐진다. 응능정이 거리에 설치된 초대형 LED 영상아케이드 구조물 ‘스카이로드’가 대형 LED 영상 스크린을 통해 빛의 향연을 선보이는 것이다. 응능정이 거리에 처음 간다면 스카이로드의 진가를 살필 수 있는 밤이 좋을 것 같다.

스카이로드가 설치된 메인 거리 양쪽으로는 골목들

04_

대흥동은 응능정이 거리에 비해 아날로그 감성이 두드러지는 공간이다.



03_

응능정이 거리에 설치된 초대형 LED 영상아케이드 구조물 ‘스카이로드’.



이 가지처럼 뻗어 있다. 메인 거리만큼이나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상점이 즐비해 이곳에도 항상 인파가 많은 편이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환한 웃음소리들을 듣고 있노라면 미소가 함께 지어진다. 으능정이 거리에서 둘러보면 좋을 곳이 있다. 인터넷과 매체 등을 통해 ‘전국 3대 빵집’으로 알려진 성심당이다. 1956년 문을 열어 60년 넘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튀김 소보로’다. 소보로빵에 팔 앙금을 넣어 튀긴 튀김 소보로는 소보로빵과 팔 앙금빵 두 가지 맛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날로그 감성 품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젊은 에너지가 충만한 으능정이 거리 골목을 빠져 나와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면 사뭇 다른 분위기의 공간과 마주하게 된다. 대흥동 거리다. ‘문화예술의 거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연극과 전시 같은 다



05_

‘튀김 소보로’가 유명한 제과점, 성심당.

06_

가톨릭문화회관 아트홀은 이제 이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던 대전 시민들에게 추억의 공간이 됐다.



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가장 먼저 만나는 풍경은 예스러운 간판이 인상적인 가톨릭문화회관 아트홀이다. 지금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지만, 대전에 마땅한 문화공연 공간이 없던 1970년대 초반 이곳은 대전의 공연 문화를 꽃피운 문화의 성지였다. ‘신의 아그네스’, ‘빨간 피터의 고백’ 등 유명 연극부터 김덕수 사물놀이패, 장사익, 김광석 등 많은 예술인이 찾아 대전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가톨릭문화회관 아트홀의 명맥은 이 거리의 작은 갤러리와 소극장들이 이어가고 있다. 대흥동 골목마다 자리한 예술인들이 연극, 미술, 전통음악 등 각자의 작업을 이어나가며 관객과 소통한다.

문화예술의 거리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차원의 골목과 마주하게 된다. 1970~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단아하고 아기자기한 골목이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건물에 자리한 트렌디한



07_

대흥동 성당은 하늘을 향해 모은 두 손을 형상화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08_

옛 충남도청 건물은 이제 우리나라와 대전의 역사를 알리는 근현대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음식점과 커피숍들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가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옛 산호다방 건물 벽면에 큼지막하게 그려진 스웨터 벽화는 이 골목의 상징처럼 자리잡았다. 2012년 대전시립미술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작업한 것으로, 당시 그려진 대부분의 벽화가 사라졌지만 스웨터 벽화만큼은 여전히 남아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거리를 오랫동안 지켜오던 ‘터줏대감’ 상점 몇 곳이 문을 닫은 점은 아쉽다.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던 산호다방은 현대식 커피숍으로 바뀌어 젊은이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모했고, 젊은 예술가를 위한 전시공간 겸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던 산호여인숙 역시 더 이상 이 거리에서 볼 수 없다. 대전시민들과 여

행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했던 독립서점 ‘도시여행자’도 시간 속으로 사라졌다.

역사가 숨쉬는 건축물 둘러보기

대전 원도심은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아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도 매력적이다. 1962년 지어진 대흥동 성당은 시멘트 벽돌로 마감해 당시 적벽돌 구조가 주를 이뤘던 고딕 양식의 여느 성당들과 차별화했다. 성당의 모습도 예사롭지 않은데, 이 독특한 건물 모양은 하늘을 향해 모으고 있는 두 손을 형상화한 것이다. 매일 낮 12시와 오후 7시면 대흥동 성당의 종소리가 대전의 원도심 한복판에 울려 퍼지니, 이 또한 귀 기울여볼 만하다.

대흥동 성당 맞은 편에서는 대전창작센터를 만날 수 있다. 1958년 지어져 서양 건축 양식인 아치형 출입구와 건물 외벽에 돌출된 네모난 창틀이 특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로 쓰였다가 이전하면서 창작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대전갤러리도 빼놓을 수 없다. 대전갤러리는 1937년 일제 강점기에 대전여중 강당으로 지어진 건물로, 우리나라 초가지붕을 연상시키는 아르누보풍의 부드러운 지붕선이 유독 아름답다. 처마 아래는 고전주의적 수법인 치형(齒形) 돌려쌓기로 장식해 마무리했다.

대흥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중앙로를 따라 대전역과 마주 보고 있는 대전근현대전시관 역시 건축학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도청으로 사용한 이곳은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웅장한 유럽식 건축양식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건물 정면 외관의 스크래치 타일과 1층과 2층 사이에 배치한 외부 벽체장식문양, 중앙 로비 바닥의 타일 문양과 천장에 상들리에를 고정해 지지대 문양 등도 꼭 살펴봐야 한다. 영화 〈변호인〉 촬영 장소로

도 쓰인 이곳은 현재 시민들이 역사공부를 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근현대전시관에서 대전역 방향으로 가면 대전천을 잇는 다리 목척교를 만날 수 있다. 나무 난간이 마치 길이를 재는 자와 같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목척교는 '6.25 때 헤어지면 만날 장소도 대전 목척교였고, 문인들 술 약속 장소도 목척교였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다리였다. 곡선미 넘치는 조형물을 설치해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탄생한 목척교는 중앙시장과 바로 이어져 지금도 대전 시민들에게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대전 원도심은 마치 테마공원 같다. 장소마다 색다른 느낌과 볼거리를 제공해 골라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앞으로 대전시가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을 갖춘 원도심을 문화허브로 조성하는 사업들도 진행한다고 하니, 다음 여행지 리스트에는 반드시 대전 원도심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

09_

대전갤러리는 우리나라 초기지붕을 연상시키는 아르누보풍의 지붕선이 유독 아름답다.

10_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탄생한 목척교는 여전히 대전 시민들에게 중요한 다리이다.



Hot Place 함께 가볼만한 곳



광천식당



대전 선화동에 자리한 광천식당은 1980년 개업해 30년 넘게 이 지역을 지켜온 대전 대표 맛집이다. 대표 메뉴는 '두부 두루치기'. 매운 양념을 듬뿍 담아 큼지막한 두부와 함께 볶은 두부 두루치기는 매콤하면서도 두부의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단맛이 절제돼 있는 것도 두부 두루치기의 장점. 두부들을 어느 정도 건져 먹은 후 사리면에 두루치기 양념을 넣고 비벼 먹는 것도 잊지 말자.



대전 중구 대종로505번길 29



‘제19회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식 개최 법원가족들의 올해 최고의 글은?

취재/사진: 안형진

지난해에도 <법원사람들>에는 ‘법원가족’으로 느끼는 행복, 가족에 대한 사랑,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 멋진 여행기 등 법원가족들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좋은 글들이 실렸다. 2018년 한 해 동안 <법원사람들> 지면을 통해 모였던 글과 마음이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상을 통해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법원사람들’ 문예상’은?

2000년부터 시작된 ‘법원사람들’ 문예상은 2018년 한 해 동안 <법원사람들>에 기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 시상해 법원가족들의 문학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계기로 양질의 작품이 수록된 완성도 높은 <법원사람들>을 제작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원사람들>에 게재된 법원가족들의 모든 작품이 심사대상이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6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제 의식, 내용, 문장구성력, 표현력, 독자의 공감 정도, 법원과

법원가족에 대한 애정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심사된다. 이렇게 심사된 최종 선정작 10편 중 최고 득점자 1인은 대상, 차점자 2인은 우수상, 나머지 득점자 7인은 장려상으로 선정되며 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정한 심사로 가려진 10편의 수상작

이날 시상식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직접 수여했다.

대상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손호영 판사의 ‘문체탐구’가 선정됐다. 손호영 판사는 김훈 작가 문체 비법을 탐구해 좋은 글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밀도 있는 탐색으로 호응을 얻었다. 우수상에는 청주지방법원 빈태옥 판사의 ‘Racing the Planet_나미브 사막을 달리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정상용 관리실무관의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미정 사무관의 '지리산에서', 인천가정법원 백중현 실무관의 '우리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신중찬 경위실무관의 '운동 그리고 나의 삶',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민영 부장판사의 '청소', 광주고등법원 이정하 실무관의 '우리보다 나를 위한 세상을 생각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성준 실무관의 '미안해! 아빠가 처음이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정현우 참여관의 '일상'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을 마친 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수상자들

과 함께 수상작에 대해 환담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수상자들의 단체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문예상 시상식은 성황리에 종료됐다. 📷



시상식을 마친 수상자들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Mini Interview

Q1. <법원사람들>에 글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Q2. 시상식에 참여하신 소회와 수상소감이 궁금합니다.



손호영 판사

Q1. 계기는 김훈이 쓴 두 문장 때문이었습니다(자전거여행2 중 91, 93쪽). 김훈은 "갯벌의 법률적 지위는 공유수면이다"고 선언하면서, "갯벌은 막는 자의 것이다"라고 확정합니다. 단정하는 문장이 가지는 굴직함에 매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작가가 저와 같은 대상(법)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캔슬레 친하게 느껴졌습니다. 작가가 법을 논했듯, 저도 작가와 작품을 이야기해볼 마음이 들었고, 김훈과 그가 만든 문장을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Q2. <법원사람들>에 글이 실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부끄럽기도 합니다. 처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격려 말씀도 듣고 1년 동안 멋진 글을 써주신 분들을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법원에는 저보다 더 탁월한 글을 써주실 분이 많으심을 잘 알기에, 더 멋진 글을 기대하고, <법원사람들>이 더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즐겁게 읽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상용 관리실무관

Q1. 가족관계등록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협의이혼을 위해 오시는데요. 종종 어린아이를 데리고 접수를 하러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표정으로 해맑게 앉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측은지심이 들곤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저의 과거에 빚대어 글을 적었습니다.

Q2.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기쁩니다. 다른 수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처장님께서 재미있는 농담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너무 긴장해서 좋은 리액션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발전하는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정하 실무관

Q1. 기사 업무를 할 때는 사건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 맡았던 사건들이 저 자신에게 질문을 남겼더라고요. 우연히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고 이 책이 가족 문제에 대한 좋은 해답들을 내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업무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에 있는 '차가운 신뢰(cold trust)'라는 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를 바꾼 힘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 간의 신뢰에서 나왔다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Q2. 생각지도 못한 문예상을 받게 되어서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상식이었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광주고등법원에서도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으로 힘찬 시동 사법역사문화교육관, 닳을 올린다

취재: 안형진_사진: 김인규

지난해 12월 개관식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던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이 손님맞이를 시작했다.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는 향후 법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워크숍과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법원가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하다. 새해 첫 교육의 포문을 활짝 연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자료분석관들과 함께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자.

새 교육관에서의 새 출발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첫 교육을 소화한 양형자료분석관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에 대해 판결문의 형량이 양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형자료분석관들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있다.

양형자료분석관으로 교육에 참여한 이태근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자료분석관 업무의 매력에 대해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이 전국법원 규모로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다양한 법원가족들과 함께 업무하며 소통을 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우보연 양형자료분석관은 “특수한 업무이기에 배울 점이 많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이뤄진 양형자료분석관들의 직무교육은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진행됐다. ‘양형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점검’,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자료조사표 작성방법’, ‘양형기준 운영점검’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익숙한 양형자료분석관들이 직접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강의를 진행했다.



(위) 법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는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아래) 사법역사문화교육관과 접한 천혜의 태안바다.

교육에 참가한 양형자료분석관들은 동료 양형자료 분석관이 진행하는 강의에 진중한 태도로 집중했다. 이태근 양형자료분석관은 “이번 교육으로 양형자료 분석관들이 함께 모여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직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전했으며, 교육에서 ‘식품·보건범죄 판결문 분석 방법’을 강의했던 우보연 양형자료분석관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 업무를 조금 더 깊숙이 바라보게 되고,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교육 셋째 날이던 1월 9일에는 양형위원회 천대엽 상임위원이 교육장을 방문했다. 천대엽 상임위원은 “이번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을 통해 양형자료분석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교육의 의의를 설명하고 교육 중인 양형자료분석관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피교육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눈길

양형자료분석관들이 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은 지난 12월 18일에 개관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천혜의 태안 자연 환경이다. 교육관을 따뜻하게 감싸 안은 방풍림을 지나 2분 남짓 걸다보면 시원한 서해 풍경이 펼쳐진다. 인접한 꽃지해변은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명소다.

1층 출입문으로 들어서면 탁 트인 로비와 ‘사법역사 문화전시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사법역사문화전시실은 ‘시대 속의 사법부, 법원 오늘, 생활 속의 법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법원, 함께 내일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법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망라해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돼있다. 더불어 부동산 등기와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도 흥미롭다.

1층에는 각종 교육시설들이 진용을 갖추고 있는데 원활한 교육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교육이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강의실은 소강의실과 중강의실로 구성돼 있으며 각 강의실은 별도의 공간이지만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 대강의실로 운영할 수도 있



어린이 로스쿨 캠프의 모습. 놀이를 통해 법원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은 태안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다. 강의실에는 책상과 의자, 스크린과 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뿐 아니라 피교육자의 편의를 위한 교육 시 운영하는 구내식당도 갖췄다. 큰 규모의 행사와 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 대강당은 물론 양질의 프레젠테이션 환경이 갖춰진 세미나실과 강사가 편히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강사대기실도 인상적이었다.

또한 2층에 마련된 어린이체험관인 ‘어린이 로스쿨 캠프’는 어린이들이 생활규범을 통해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놀이를 통해 법원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형 콘텐츠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더해 교육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유아 놀이방’까지 갖춰져 있어 어린 방문객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느껴진다. 이외에도 2층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각종 운동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세탁실도 눈에 띈다.

이곳에서 첫 교육을 진행한 양형자료분석관들은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해 있어 교육 효율이 한층 높았다고 말했다.

이태근 양형자료분석관은 “정형화된 교육원에서 받았던 교육과는 달리 좋은 환경에서 함께 교육받다 보니 직원들 간의 일체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다”라며 “기회가 닿는다면 다른 법원가족 분들도 꼭 와보



교육관을 이용하는 법원가족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의 모습.



교육에 참여한 양형자료분석관들은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우보연 양형자료 분석관도 “교육관에 오기 전에는 ‘3박 4일이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하고 우려도 했는데, 이곳에 와보니 좋은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어 주위를 돌아보며 힐링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에도 더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혔다.

교육관의 총괄 실무를 맡아보고 있는 경민성 행정관에 따르면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은 2019년에만 대략 62개의 교육 일정이 촘촘하게 예정돼 있다고 한다. 새롭게 개관한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이 교육을 통한 실무 능력의 배양을 넘어 법원가족들의 심신을 건강히 단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양형자료분석관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아래) 큰 규모의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대강당의 모습.

Mini Interview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Q1: 양형위원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2007년 4월 27일 대법원 산하에 독립된 양형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형위원회는 제6기 양형위원회로서 지금까지 총 38개 범죄권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였고 각 범죄권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한 수정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은 양형위원회의 사무처리 기구로서, 운영지원단장을 비롯해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Q2: 교육에 참석한 양형자료분석관은 어떤 분들인가요?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구체적 사건에서 고려되고 있는 양형인자를 조사하고 양형인자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양

형편차의 정도 및 그 발생원인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 위원회에 소속되어 양형자료의 수집 및 이탈사유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분석요원으로서 양형자료분석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양형자료분석관은 자료조사과 소속으로 운영지원단 본부에 8명, 각급 법원(재경법원 3곳·의정부, 인천 수원지법/고등법원 소재지 법원 4곳·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법)에 7명의 양형자료 분석관이 각각 근무 중입니다.

Q3: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와 활동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기준의 설정·변경에 기초가 되는 양형자료를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정기적으로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를 양형기준 운영점검이라고 합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양형기준 설정범죄 사건 중 무죄, 벌금형 선고 등을 제외한 양형자료분석관의 운영점검 사건수는 총 119,189건으로, 이들 사건 중 약 68.6%인 81,800건의 사건이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자료분석관의 양형기준 운영점검 결과는 국회 및 법원 내부, 양형연구회 등 각 기관에 통계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매년 ‘연간 보고서’ 및 ‘양형기준 적용현황분석’ 책자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우리모여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법원 방문기 “인간적이고 따뜻한 법원 알게 돼 기뻐”

취재 / 사진. 안형진

법원의 따뜻한 환대와 배움 향한 학생들의 열의가 어우러졌다. ‘우리모여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은 처음 찾는 법원이 마냥 신기해 질문하고 또 질문했다. 짧지만 즐겁고 따뜻한 학생들의 법원 방문.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에너지 넘치는 학생들의 활기찬 견학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우리모여 지역아동센터’는 동작구의 시민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

센터다. 정광호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모여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열의는 법원을 견학하는 동안에도 빛을 발했다. 법원전시관 안내자의 설명을 경청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소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나갔다.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대한민국 법의 역사와 재판의 종류 및 절차, 판사복의 어제와 오늘 등을 둘러보고, 초대 대법원장가인 김병로 선생의 동상과 정의의 여신상, 대법정과 소법정에서의 재판 절차와 과정, 중앙홀과 대법정의



이영미 판사는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친숙한 대화를 나눴다.

상징적인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도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대법정의 웅장한 모습 앞에서 감탄을 자아 내기도 했다.

항상 꿈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뒤이어 '판사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학생들의 뜨거운 박수 세례를 받으며 대화의 문을 연 이영미 판사는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며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영미 판사가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자신이 그것에 답하는 방식을 제안하자 많은 학생이 손을 들어 궁금한 것들을 쏟아냈다. 학생들은 ‘판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가장 어려웠거나 기억에 남는 재판은?’, ‘법조인의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들에 친절하게 답한 이영미 판사는 학생들에게 꿈을 묻기도 했다. 이영미 판사는 “꿈이라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항상 생각해야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다. 직업에 대한 꿈도 좋고 다른 꿈도 좋으니 꿈을 갖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며 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들려줬다.

TV에서 보던 것과 달랐던 법원

정광호 센터장은 견학을 마친 뒤 “현장학습 차 학생들과 많은 곳을 다녔지만, 어느 때보다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법원의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설명 덕분에 학생들이 법원을 한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우리모여 지역아동센터의 김태성 학생은 판사님과 대화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아직은 꿈을 몰라도 괜찮다. 그만큼 열려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씀해준 판사님이 멋졌다”고 전했다. 김태성 학생은 또 “법원에 오니 처음에는 좀 떨리고 무서웠는데 생각했던 것과 달리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원정 학생도 “TV에서 법원을 볼 때 웅장하고 딱딱한 곳이라고만 느껴졌는데, 견학을 통해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들이 계신 곳이라는 걸 알게 되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추운 바깥 날씨와 달리, 법원전시관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법원의 따뜻한 관심으로 어느 때보다 훈훈했다. 이날 하루의 기억이 학생들이 꾸는 꿈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본다. 🍵



법원전시관 안내자의 설명을 경청하는 학생들. 이날 전시관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함께하는 즐거움 —— 조사심의관 코너

자주 틀리는 맞춤법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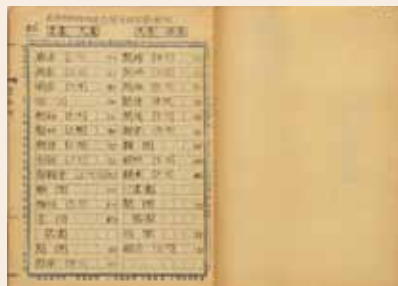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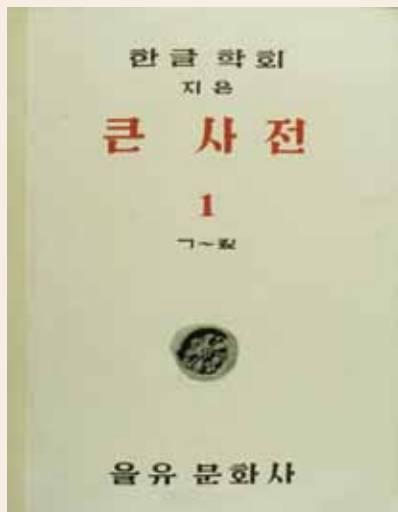
글: 서여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영화 <말모이> 포스터 (출처: 롯데엔터테인먼트)

얼마 전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조선어 사용의 금지, 창씨개명의 실시, 한국말 신문의 폐간 등 일제강점기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심화될 무렵 목숨을 걸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1942년 10월경부터 1943년 4월경까지 조선어학회 회원과 관련자들 33명이 검거되어 고문과 탄압을 받고, 그중 일부는 투옥된 사건,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럼, 영화 제목인 ‘말모이’는 무슨 뜻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주시경 등이 1910년 무렵에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하다 끝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설명을 보충하면, 최남선이 설립한 조선광문회에서 주시경과 그의 제자들인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등이 민족주의적인 애국계몽의 수단으로 편찬한 사전으로, 1911년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원고가 마무리되었으나 출판되지 못하고, 현재 일부의 원고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전하는 『말모이』는 표제가 “ㅁㅏ ㄹㅁㅕㅗㅇㅣ”로 가로 풀어쓰기로 되어 있으며, ‘알기’·‘본문(本文)’·‘찾기’·‘자획(字劃)’·‘찾기’로 짜여 있고, 청색 원고지에 붓으로 쓴 이 원고는 240자의 원고지로 모두 153면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주시경 선생님이 국어사전을 만들다가 끝내지 못하고 1914년 사망하자, 1921년 국내 국어학자들이 모여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고 1929년부터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31년 그 이름을 〈조선어학회〉로 바꾸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고, 1936년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간행하며 사전 편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활동을 하던 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타격을 받고 사전 편찬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어학회〉는 광복 이후 1949년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1929년에 시작한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을 이어받아 1957년 6권으로 구성된 『큰사전』을 완간하였습니다. 영화에도 일부 나오는 장면입니다만, 각 지역에서 통용되는 단어와 그 뜻을 조사하는 과정, 서로 형태가 조금씩 다른 단어들을 모아놓고 표준어를 선정하는 과정, 원고를 확정하고 교정을 거쳐 방대한 양의 사전을 출판하기까지의 과정에 녹아든 많은 이들의 정성과 노력의 양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여도 어려운 일을



(위) 〈말모이 원고〉 (등록문화재 제523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사진 출처: 문화재청)
(아래) 〈큰사전 속표지〉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일제강점기 서슬 퍼런 시절에 목숨 걸고 한 분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는 한글을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쓰고 있는 것이겠지요.

여기에서 다소 교과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선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정확하게 사용하자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심의관 코너에서는 자주 틀리는 맞춤법에 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문은 제가 만들어 보았고, 해설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묻고답하기 답변을 참조하였습니다.

오랜 동안(①)/오랫동안(②) 그리워하던 그 사람을 우연히 마주쳤다.

오랜만에(③)/오랫만에(④) 보는 모습이었지만 그 사람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맞는 표현: ②, ③

☞ ‘오랫동안’은 ‘시간상으로 썩 긴 기간 동안’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오래’와 ‘동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서 ‘오랫동안’이 된 것입니다. 관형사 ‘오랜’과 명사 ‘동안’을 활용하여 ‘오랜 동안’이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지만 이미 ‘오랫동안’이 위 뜻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오랫동안’이 맞는 표현입니다.

☞ ‘오랜만’은 오랜기간만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ㄴ’ 받침을 사용해서 오랜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며칠(①)/ 몇 일(②) 후에 뵈요(③)/뵙쇼(④).

맞는 표현: ①, ④

☞ ‘며칠’은 그 의미가 ‘그달의 몇째 되는 날’이건(예문: 오늘이 며칠이지?), ‘몇 날’(예문: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이건 모두 ‘며칠’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즉 ‘몇 일’로 쓰는 경우는 없으며, 항상 ‘며칠’로 씁니다. ‘며칠’의 경우는 ‘몇 개, 몇 사람’ 등에서의 ‘몇’과 ‘날’을 나타내는 ‘일(日)’이 결합된 ‘몇+일’로 분석하여 그 표기가 ‘몇일’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혼동되기 쉽지만, 이 단어가 ‘몇+일’로 분석될 수 있는 합성어라면, 그 발음이 [멏닐] → [면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면닐]이 아니라 [며칠]로 발음되므로 소리대로 적어 불규칙성을 반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현재 표준어에서는 ‘며칠’이 맞습니다.

☞ ‘뵈요’가 맞는 표현입니다. ‘뵈요’와 같이, 어간 ‘봬-’ 뒤에 어미가 붙지 않고, 바로 보조사 ‘-요’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동사 ‘봬다’의 어간 ‘봬-’ 뒤에 어미 ‘-어’가 붙은 ‘봬어’의 준말인 ‘봬’ 뒤에 ‘-요’가 붙은 것이므로, ‘봬요’와 같이 적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설겅이(①)/설거지(②)를 할게요(③)/할께요(④).

어머니! 네가 웬일이니(⑤)/웬일이니(⑥)?

영훈은 금새(⑦)/금세(⑧) 설겅이(①)/설거지(②)를 해치웠다.

맞는 표현: ②, ③, ⑤, ⑧

☞ 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을 ‘설거지’로 표시합니다. 동사로 표현하면 ‘설거지하다’라고 씁니다. 국립국어원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해설』Ⅱ 제3장, 제1절 고어, 제20항에서는, ‘설거지’를 원래부터 명사인 단일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설겅다’를 비표준어로 삼은 것은 ‘설겅어라, 설겅으니, 설겅더니’와 같은 활용형이 쓰이지 않아 어간 ‘설겅-’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발음상 혼동으로 인하여 ‘ㄹ게요’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할게요’의 구성으로 ‘ㄹ게요’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ㄹ게’에 존대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 ‘요’가 붙은 것입니다.

☞ ‘어찌 된 일. 의외의 뜻’을 나타내는 명사 ‘웬일’은 ‘웬일로 여기까지 다 왔니?/네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이게 웬 일이나?/지각 한 번 없던 그가 결석을 하다니, 웬일일까?’와 같이 쓰이므로, ‘웬일, 웬일로, 웬일이나?, 웬일일까?, 웬일인지’와 같이 씁니다. 참고로 ‘웬’을 쓰는 경우는 ‘오늘은 웬지 기분이 안 좋다.’의 ‘웬지’밖에 없습니다.

☞ ‘지금 바로’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입니다. 본말인 ‘금시에’의 형태를 염두에 두시면, ‘금세’의 형태를 기억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의 어음**결제**(①)/**결재**(②) 관련 서류를 사장이 **결제**(③)/**결재**(④)했다.

하지만 사장의 일 처리는 항상 **어의없다**(⑤)/**어이없다**(⑥).
사장은 나를 무능하다고 **닥달**하지만(⑦)/**닥달**하지만(⑧),
나도 이 업계에서는 **내로라하는**(⑨)/**내놓라하는**(⑩)/
내노라하는(⑪) 전문가이다.

따라서 나는 사장이 **그러던 말던**(⑫)/**그러든 말든**(⑬)
구시렁거리지(⑭)/**구시렁거리지**(⑮) 않고 사장의
뒤치다꺼리(⑯)/**뒤치닥거리**(⑰)를 할 것이다.

맞는 표현: ①, ④, ⑥, ⑧, ⑨, ⑬, ⑮, ⑰

☞ '**결제**(決濟)'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사
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의미하고, '**결재**(決裁)'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
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이 둘의
표현이 자주 헷갈리는데, 한자를 기억해두면 구별이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어이없다**'는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
는 표현의 '어처구니없다'와 같은 뜻의 말입니다. '어처구
니'의 뜻과 어처구니없다의 어원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들
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남을 단단히 억박질러서 혼을 내다'는 의미의 동사는 '**닥
달하다**'입니다. 이 동사에는 '물건을 손질하고 매만지다',
'음식물로 쓸 것을 요리하기 좋게 다듬다'예문: 이 닭을 깨
끗이 닦달해서 꼭 고아 상에 올리도록 하여라'라는 뜻도
있답니다.

☞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는 뜻의 맞는 표현은 '**내로라
하다**'입니다.

☞ '**그러든 말든**'이 맞는 표현입니다. '-든'은 '-든지'의 준말입
니다.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므로, 이를
'-던(지)'로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꾸 하다'는 뜻의 맞는

표기법은 '**구시렁거리다**'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구시렁대
다'도 있습니다.

☞ '**뒤치다꺼리**'가 뒤에서 일을 보살피서 도와주는 일을 뜻하
는 바른 표현입니다. 이와 달리 북한어에서는 뒤치다꺼리
를 '뒤치닥거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치다꺼리'
를 표준어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은 "한글 맞
춤법 제5항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
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뒤
치다꺼리'는 [뒤치다꺼리]처럼 '꺼'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데, 여기서 그 앞말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발음되는
대로 된소리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만약 의존 명사 '거
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거리'로 적는다면 앞말은 '뒤치
닥'으로 상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뒤치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형태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음 나는 대
로 쓴 것이라 하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치다꺼
리'를 공식적으로 하나의 단일 형태소로 보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많이 맞히셨나요? 저도 글을 준비하
면서 잘못 알고 있던 표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맞는 표현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저의
게으름을 반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과 관련된 전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사전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2019. 3. 3.까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
시가 진행 중입니다. 말모이 원고, 한글 맞춤법 통일
안, 큰사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
과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가는 길에
맞춤법 게임도 하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시작!



글: 현종우 사무관(인천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개명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나, 팀장님! 여기서 근무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50~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으로 어디서 본 듯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분이 돌아가고 접수한 옆 창구로 가서 이름을 확인한 후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15년 전 가정사역연구원 부부행복학교팀에서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정불화로 그곳에서 몇 번 교육을 받았던 분이였다. 회복하고 잘 사시는 줄 알았더니 가정폭력으로 가정법원에 방문한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내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반갑게 인사를 한다. “어머, 여기서 근무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곳까지?” “취업하는데 후견인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요.” 또한, 최근에는 아파트 이웃집에 사는 큰딸 친구 어머니가 고3인 아들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아 아들 개명을 신청 하려다 나를 보고 깜짝 놀란다. “주은이 아빠 여기서 근무해요?” 20여 년을 같은 아파트 아래 위에 살아 인사는 주고 받았지만 내가 이곳에 근무한다는 것은 지금 알게 된 것이다. 팀장! 주은이 아빠! 이들과 헤어지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

을 생각하면서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어떤 모습이 그들 기억 속에 남게 될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동작가 정채봉님은 만남을 5가지 사물에 비유해서 시로 표현했다.

만남

정채봉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법원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2018년 마지막을 함께 한 인천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직원들과의 만남이다. 종합민원실 직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도 이들을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되고 그때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민원실장인 김수영 사무관님은 민원실 직원 및 가정법원 내 모두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멋진 후배이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남성 같은 담대함이 매력인 김 사무관님을 중심으로 민원실은 6개월간 멋진 화음을 이뤄갔다. 작은 체구에서 풍겨 나오는 여유와 미소,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개성이 강한 우리를 하나로 이끌었다. 또한 실장님을 도와 민원실 내에서 ‘컨타(컨트롤타워)’로 불리는 막내 정선욱 실무관님은 민원인이 몰리는 시간이 되면 민원실 창구로 나가 직접 민원인에게 신청서 작성요령 및 송달료, 인지납부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정 실무관님 덕분에 접수창구에서는 한결 수월하게 접수가 이뤄졌다. 지방에 계신 정

실무관님의 부모님이 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과 송이버섯 덕분에 처음으로 산삼주와 자연산 송이주를 맛볼 수도 있었다. 우리는 '작년 말까지 정 실무관님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세웠지만 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접수창구의 양반이라 불리는 고태석 계장님은 항시 급한 법이 없다. 아무리 민원인이 급하고 언성을 높여도 언제나 차분하게 응대를 한다. 항시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는 자세는 보는 이에게 신뢰가 가게 만든다. 늦은 나이에 딸을 귀하게 얻어서 우리는 그를 딸 바보라고 놀린다. 법원생활 절반 이상을 민원실에서 근무한 이광진 계장님은 악성(?) 민원인 대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 특유의 억양으로 악성 민원인도 그 앞에서는 오래 가지 못한다. 몸은 호리호리해도 못하는 운동이 없다. 가정법원 내 탁구 최강자인 국장님의 배려(?)로 탁구의 1인자 자리에 오르기도 했고 테니스, 족구 등 공이 등글면 모두 이 계장님의 손을 비켜갈 수 없다. 학구열도 대단하여 영어학원 수강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전쟁 중에 있어 조금 힘들다는 엄살을 피우기도 한다. 집행문 부여, 제증명발급 및 가압류취소 등 접수창구에서 가장 많은 문건과 민원인을 상대하는 이멜다 계장님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고음으로 언제나 민원실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업무에 대한 열정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처음 대하는 민원인들과도 오래 보고 지낸 듯한 느낌을 준다. 택배의 처음과 끝이 이 계장님으로 귀결되어 우리는 민원실의 '택배의 여왕'이라 부른다. 택배의 내용물은 대부분 민원실 내의 간식이다. 민원인들과 상대하다 보면 퇴근 무렵 허기가 지는데 이때를 잘 아는 이 계장님이 늘 간식을 마련한다. 하지만 딸아이의 잔병치레가 많아 곁에서 보면 늘 안쓰럽기만 하다. 목포댁이라 불리는 김하진 계장님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다. 한번은 내가 민원실로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민원인이 내가 담당하는 개명창

구에 와서 소리를 질렀다. 참으로 난감했다. 그때 스마일 김 계장님이 창구로 와서 미소를 지으며 민원인의 말을 들어주고 원하는 내용을 설명하자 고맙다고 말하며 돌아갔다. 그 뒷모습을 보고 얼마나 김 계장님이 고맙고 감사한지, 그때부터 술을 마시지 못하는 난 저녁회식 때가 되면 집이 같은 방향이라 김 계장님의 운전기사를 자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만나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이현주 계장님. 이 계장님은 운동에 남다른 소질이 있고 맛집과 분위기 있는 집도 잘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색다른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특유의 편안함으로 휴식을 제공하는 산소 같은 여성이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것 같지만 조용하지 않은 반전 매력을 선사하는 김명자 계장님. 김 계장님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처음 발령받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었는데 알면 알수록 그녀만의 매력이 너무 많이 묻어 나온다. 노래, 댄스, 탁구, 합창 등 모든 것에 소질과 배우는 열정이 많고 이 모든 것에 남부럽지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개성과 특징을 가진 우리는 인사 이동으로 서로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민원실만의 가을 산행준비에 들어갔다. 산행은 컨타인 정 실무관님이 맡고, 산행 후 뒤풀이는 분위기가 있는 맛집을 잘 아는 이현주 계장님이 맡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며 단지 우리는 인도하는 대로 발걸음만 옮기면 됐다. 가을 산행지로 안산을 잡아 서대문형무소 근처에서 모이기로 했다. 안산에 가는데 왜 서대문에서 모이냐고 반문했더니 모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도 구멍이 많은 이 몸은 안산이 서울 서대문 안산에 있는 자락길을 뜻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안산자락길 정상에 오르니 서울시내 및 남산타워, 청와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날따라 평소엔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던 미세먼지도 우리를 비껴갔다. 각자 준비한 도

시락과 정 실무관님이 준비한 자연산 송이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안산둘레길을 내려와 이현주 계장님의 인도로 서촌거리의 작은 스페인음식점으로 갔다. 처음 대하는 음식이라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와인과 곁들여 먹는 스페인음식이 낯설지 않았다.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한 시간들을 도란도란 나누는 사이 어둠은 성큼 우리 곁으로 찾아 들었다.

2019. 1. 인사발령문에 따라 9명 중 3명이 민원실에 남고 6명은 서로 다른 부서 및 타 법원으로 발령받았다. 우리는 함께한 만남의 발자국을 남기기 위하여 한 장의 사진을 남기기로 했다.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흑백사진을... 이들과 함께 한 소중한 6개월이 지나고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지금은 각자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가사와로 발령을 받은 나에게도 또 다른 직함이 붙었다. 소년조사관! 앞으로 소년조사관으로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한다. 📷



소확행(小確幸)을 주는 여행지



글. 이정연 실무관(대전지방법원)

필자보다 더 많은 여행지를 방문하고 더 풍부한 경험을 쌓은 사람도 많겠지만, 작은 경험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의 주제는 제목과 같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던 여행지를 필자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곳 추려보았다. 선정기준은 필자의 100%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혹여 이 여행지들을 방문한 후 필자에 대한 불평이 있더라도 마음 속에 고이 접어두시기를 바란다.

① 아시시

[Assisi, Repubblica Italiana(이탈리아어)]

아시시는 이탈리아 움브리아주 페루자현에 위치한 소도시이며, 로마와 피렌체 사이에 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 때문에 로마에서 피렌체로 이동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잠시 들려가는 곳으로 통하기도 한다. 중세 건축물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매우 아담하고 정갈한 건물과 골목의 배치는 방문자에게 마치 어린 시절의 집 앞 골목에 와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 도시가 산을 따라 이루어져 있어서 높은 언덕에 올라 넓게 펼쳐진 평원을 바라보는 것이 백미이다. 그리고 아시시를 드나들 때 밖에서 산을 따라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면 또 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여담으로 영화 <검은 사제들>을 보면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 아시시의 보물인 '프란체스코의 종'을 가져온다는 장면이 있다. 아시시는 성 프란

체스코의 출생지이며, 성 프란체스코 성당(Basilica di San Francesco)이 있고,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시작된 곳이자 그 중심지이기에 그러한 설정을 가져왔지 않나 싶다. 참고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회 건축물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② 마나롤라

[Manarola, Repubblica Italiana(이탈리아어)]



마나롤라는 친퀘테레(Cinque Terre) 5개 마을 중 하나이다. 친퀘테레는 이탈리아 라스페치아(La Spezia)의 서쪽 리구리아 지역에 있는 절벽과 바위로 이루어진 해안으로, 몬테로소알마레(Monterosso al Mare), 베르나차(Vernazza), 코르닐리아(Corniglia), 마나롤라(Manarola), 리오마조레(Riomaggiore)의 5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 마을과 주변 언덕, 해변은 전부 친퀘테레 국립공원의 일부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바위 위에 지어진 알록달록한 집들이 모인 마나롤라

마을을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는 것이 포인트이며, 야경으로 보아도 매우 훌륭하다. 또한 바위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풀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것 또한 마나롤라에서의 색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 간혹 높은 바위에서 바다로 다이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매우 위험하므로 함부로 따라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늘색 길(Sentiero Azzurro)'이라고 불리는 친퀘테레 다섯 마을을 연결한 산책로가 있어서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걸어볼 것을 추천한다. 다만 친퀘테레를 오가는 열차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친퀘테레 지역에서 1박을 할 여정이 아니라면 반드시 나오는 막차 시간을 확인하도록 한다.

③ 체스키크룸로프

[Český Krumlov, Česká republika(체코어)]

체스키크룸로프는 체코의 남보헤미아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공산당의 지배 아래에 있던 시기에 마을의 상당수가 훼손되었지만,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 이후 공산주의 정부가 무너지면서 마을의 대부분이 다시 복구되었으며, 냉전 이후인 1992년에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마치 중세시대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고전미를 마을 전체가 지니고 있다. 파스텔톤의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동화 속이나 나올법한 풍경을 담고 있어 누구나 매혹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면적이 매우 작아 도보로 마을 전체를 하루 만에 둘러볼 수 있으며, 체스키크룸로프 성에 오르면 아름다운 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평생 소장용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여담으로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코젤(Kozel) 다크 생맥주를 마셔보기를 권한다.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접하기 쉬워졌지만, 체코 본고장에서 마시는 그 깊은 맛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④ 브뤼셀

[Bruxelles, Royaume de Belgique(프랑스어) /

Brussel, Koninkrijk België(네덜란드어)]

브뤼셀은 벨기에의 수도이다. 벨기에를 구성하는 세 지역(플란데런, 왈롱, 브뤼셀) 중 하나이며, 공식 이름은 ‘브뤼셀 수도권 지역’으로 법적 수도인 브뤼셀 시를 포함한 19개 지방 자치체로 구성되어 있다. 벨기에는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브뤼셀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가 공용어로 지정된 이중 언어 지역이다. 브뤼셀은 매우 유명한 여행지로서 본 글의 취치와는 거리가 멀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메인 광장인 그랑플라스를 중심으로 한 주요 관광지는 도보로 하루면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하며, 다른 유럽의 대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소소한 아름다움과 자유로움이 있기에 추천 목록에 포함하였다. 그랑플라스가 가져다주는 해방감에서 진정한 여행이란 과연 무엇인지 자문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랑플라스 가장자리のカ페에 앉아 외플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종일 그곳에 있어도, 낮과 밤의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주는 행복으로 전혀 지겹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그냥 광장바닥에 주저앉아 커피나 맥주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섞여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벨기에 왕립 미술관’에 들려 자크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의 <마라의 죽음>(La Mort de Marat, 1793)을 꼭 보도록 한다. 미술관 출입문 위에 한글로 ‘벨기에 왕립 미술관’이라고 쓰여 있어서 찾기 쉬운 것이다.

⑤ 씨엠립

[Siem Reap City, Kingdom of Cambodia(영어)]

씨엠립은 캄보디아 씨엠립 주의 주도이며, 앙코르 와

트를 위시한 앙코르 유적으로 유명하다. 앙코르 유적지는 워낙 유명하고 여행객이나 인터넷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에 대한 설명이나 소회는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다. 친절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밤이 되면 180도로 변하는 ‘펍 스트리트’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맛보면 누구든지 씨엠립에 푹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씨엠립 외곽에 톤레삽(Tonlé Sap)이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다. 쪽배를 타고 망글로브 숲과 수상가옥을 구경하며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때를 잘 맞추면 수상에서 멀리 수평선으로 떨어지는 해를 구경할 수 있는데,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장면을 눈과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씨엠립 시내에서 10분 정도 나가면 ‘평양랭면관’이 있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냉면집이며, 식사하는 동안 식당직원이 계속 옆에서 대기하면서 대화도 하고 주문도 받아준다. 북한 음식을 맛보며 북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흔치 않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지만, 음식은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씨엠립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다른 여행지에 비해 적은 돈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여행할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씨엠립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여유로운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실시

<https://egdrs.scourt.go.kr>

정리. 편집실

2019년 1월 1일부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은 물론 노플러그인 방식을 도입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 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 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취업, 각종 인·허가, 자격취득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 1. 1.부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이용해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노플러그인(No-Plugin) 방식 도입으로 액티브X(ActiveX)와 같은 부가 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요

- 2019년 1월 1일부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 신청인: 본인만 신청 가능

- 수수료: 무료

- 서비스 이용 시간: 24시간 제공

(다만,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음.)

-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기능: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한 2차원 바코드 방식은 별도의 장치 및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해 진위 확인 절차가 불편하므로,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발급확인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함



그런 ‘만두’하지

만두를 말하다, 제갈공명부터 K-만두까지

글: 강연희(맛 칼럼니스트)

만두는 순대, 떡볶이, 어묵 등과 함께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하얀 만두피로 감싼 고기와 야채 등의 만두소를 베어먹으면 구수한 육즙이 혀를 만족시킨다. 군만두, 찐 만두, 물만두 등 기호에 따라 조리법도 다양한데, 겨울에 먹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입 안에 침이 고인다.

제갈공명과 만두

만두의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 의외의 인물과 만나게 된다. ‘삼국지’로 잘 알려진 제갈공명이다. 중국 서진의 진수가 280년에 지은 <삼국지>에 따르면 ‘촉한의 제갈공명이 225년 가을, 남만정벌 때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며 고기를 밀가루와 섞어 만수(饅首)를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남만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 제갈공명은 귀국길에 여수라는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풍랑이 심하게 일어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다. 현지인들이 그를 찾아와 49명의 머리를 바쳐서 남만정벌에서 죽은 귀신들을 달래야 한다고 간청했다. 하지만 제갈



공명은 선뜻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수한 전쟁으로 병사를 잃은 상황에 죄 없는 수십 명을 처형할 경우 변란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강을 건너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이때 제갈공명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다. ‘인신공양’ 풍습을 존중하면서도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 제갈공명은 밀가루반죽 속에 다진 양고기, 쇠고기 등을 채워 넣은 뒤 사람머리 모양으로 빚어 강물에 던졌다. 그러자 강물은 잔잔해지고 제갈공명과 그의 군대는 무사히 강을 건넜다.

똑같은 만두라 부르지 마오

만두라고 다 똑같은 만두가 아니다. 지역마다, 또 특산물과 문화 차이에 따라 만두는 모양과 맛이 다르다. 대구는 납작만두가 유명하다. 납작만두는 잘게 썬 당면과 부추로 속을 채운 납작한 모양으로 기름에 튀기듯 구워 바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떡볶이나 쫄면 같이 매콤한 음식과 곁들여 먹기도 한다. 충청도에서는 오색만두를 먹는다. 치자(노란색), 지초(분홍색), 도토리(갈색), 부추(초록색) 등을 넣고 반죽한 만두피에 배추김치, 두부, 쇠고기, 당면을 넣어먹는데, 만두피 색깔에 따라 맛이 달라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북한 지역에도 다양한 만두가 있다. 황해도에서는 마치 보자기를 싸듯 네 귀퉁이를 접는 방식으로 만드는 편수만두를 먹고, 감자가 많이 나는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에는 막가리만두를 먹는다. 막가리 또는 막갈이는 감자를 거칠게 갈아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평안도에는 모양이 동글동글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굴림만두가 있다.

해외에서도 인기, K-만두

1인 가구가 늘고 집에서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냉동만두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냉

동만두 생산액은 2013년 4,042억 원에서 2017년 5,194억 원으로 28.5%가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만두 소비량 역시 2016년 2.3kg으로, 2012년의 1.16kg에 비해 2배(98.3%)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냉동만두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K-만두로 명명되는 우리나라 냉동만두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 식품기업의 미국 만두 매출은 2,400억 원을 기록했다. 2010년 미국에 진출한 이후 2016년 처음으로 연간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다가, 2년 만인 지난해에 2,400억 원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 기업은 중국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2015년 70억 원 수준이던 중국 매출이 지난해에는 5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다른 식품기업 역시 지난해 베트남에서 2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제갈공명의 임기응변에서 시작된 만두가 이제는 전 세계인이 입맛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간편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맛도, 모양도, 조리법도 제각기 다른 만두의 변신. 훗날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한 만두를 먹게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



사법연수원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 117명 새 법조인 탄생

2019. 1. 14. (월)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거행됐습니다. 총 117명의 연수생이 수료한 이날 행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치사를 통해 “법조인은 사회 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며 “법률가는 전통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활동할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은 식사를 통해 “2년간의 연수과정을 무사히 마친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함께 승자의 정신(Winning Spirit)으로 희망을 품고 기백 있게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길로 달려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정호승 시인의 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수료생들의 희망찬 새 출발을 축복하고 싶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수료생들은 반별로 모여 담당 지도교수로부터 수료증을 수여받고, 2년 동안 정들었던 지도교수 및 동기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년 가사비송 및 후견감독 실무편람 발간

부산가정법원에서는 가사비송사건 및 후견감독 실무자들을 위한 「2019 가사비송사건 업무편람」, 「2019 부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편람」을 각 800부씩 발간하여, 전국 법원을 비롯한 각 지원에 배부하였습니다.

가사비송사건 업무편람은 가사비송사건 업무 담당자가 빠뜨린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을 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후견감독 실무편람은 현재 부산가정법원이 운용하고 있는 실무 관행과 그간 축적된 실무상 지혜를 상당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들이 가사비송이나 후견감독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법원가족 여러분께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재판 업무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년 상반기 「청소년 법문화 캠프」 행사 실시

전주지방법원은 2019. 1. 14. (월) ~ 2019. 1. 16. (수) 2박 3일 동안 관내 고등학생 11명을 초청하여 '2019년도 상반기 청소년 법문화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 2회, 방학기간 동안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사법제도 및 법원의 역할을 소개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와 소통할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첫째 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O/X 퀴즈를 함께 하며 인사를 나눈 학생들은 이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주 보호관찰소를 견학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민사 재판을 방청하고, 변호사 사무실, 전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였으며 민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은 공보판사의 지도 아래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이어진 '법관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법원업무와 법관의 삶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수료식 날 법원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 여러분들이 즐거운 진로탐색 경험을 하고,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 데 이번 캠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격려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2019. 1. 17.(목)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와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식에서 이경춘 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래 개인채무자의 도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 왔는데,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된다면 채무자의 실질적 회생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고 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주택을 잃어버려 더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정상적인 채무의 변제도 어렵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주신 서울회생법원에 감사드립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 재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법원사람들 원고모집



법원가족 사연을 기다립니다. 직장생활, 업무 속 에피소드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가 가능하며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룸'에 참여해 주신 분께도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이상
- 원고 마감 수시
- 보내실 곳 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02-3480-1456 공보관실
- 홈페이지 <http://people.scourt.go.kr>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http://www.facebook.com/scourt_korea
- 트위터 주소 http://www.twitter.com/scourt_korea
-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http://www.youtube.com/scourt_korea
-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court_korea/

지난호 퀴즈 당첨자



권영민 실무관 대구가정법원
김경연 법원보안관리대 실무관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임 행정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영아 행정관 논산지원
손경희 실무관 합천등기소

지난호 퀴즈 정답



- ① **평청송**
- ② **법마루**

빈칸 QUIZ



- ① 아시아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인 ○○○○은 2010년 우리나라 법원 최초로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해 전자소송을 개시했다.
- ② 대전 원도심 응능정이 거리에는 초대형 LED 영상아케이드 구조물 '△△△△△'가 설치돼 있다. LED 영상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빛의 향연은 응능정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즐거운 볼거리다.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법원사람들>을 읽은 소감을 '빈칸 QUIZ'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퀴즈 2개 답을 모두 보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되며, 해당 월 20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법원사람들@scourt.go.kr •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 소감과 빈칸 QUIZ 정답을 모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하여 매월 추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칭찬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민원안내 박수경

천안지원 등기소에 셀프 등기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
라 솔직히 많이 떨렸습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 관련 서류
는 어떻게 첨부하는지 국민주택채권 등 모르는 것 투성이였습니
다. 인터넷에서 등기소 입구에 있는 도움 주시는 분이 어느 정도
서류구비 여부가 맞는지 확인해 준다고 하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박수경 님
의 선한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가족의 일처럼 하
나하나 서류를 검토해 주시더니 빠진 서류를 알려주셔서 다시 구
청에 다녀오고,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될 금액도 다 알려주시고,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온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법원에 갔을 때는 권위적인 느낌을
받아서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박수경 님의 친절에
너무나 감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분 꼭 격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수경 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2018. 박 ○ ○

THANK YOU

